

아이디어창출 및 발명의 발상기법

나도 발명 할 수 있다

발명인이 되려면 먼저 「나도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부터 가져라.

미국인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나도 발명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발명처럼 보람 있고 유익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이거 큰일인데 어떻게 하지?」 또 「여기가 마음에 걸리는데 고칠 수 없을까?」 등 보고 듣는 것 모두가 생각처럼 안되는 것 투성이이다. 그런데 아무리 녀석한 생활을 누리는 사람도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는 한이 없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 집안에서, 집밖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저렇게 고쳤으면 어떨까?」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는 이미 발명인인 것이다.

결국 발명이란 어떤 불평·불만·곤란같은 것에 부딪혔을 때 속상하고 화내고 체념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는 「도전하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미국인 「필립」의 「+자 나사못」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누구나 적어도 한번쯤은 나사못을 박았으리라. 이때 나사못을 박고자 하는 부분이 단단해서 저항이 크거나 나사못의 홈이 얇거나 하면 도라이버가 벗어나서 미끌어질 때는 참으로 속이 상한다. 더우기 홈이 망가져서 빠지도 박지도 못할 때의 답답함...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되풀이 하여 겪은 일이다.

그러나 이때 「울화가 치민다」로 끝내버리지 않고 「어떻게 도라이버가 벗어나지 않고, 홈도 망가지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하고 연구하여 미국인 「필립」은 「-자 나사못」에 또 하나의 홈(-)을 더한 「+자나사못」을 발명하여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다.

우리는 「필립」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마디로 발명의 시작은 「생각하기」에 있다. 우리들 주변의 가까운 곳부터, 조그만 것부터 어떻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할까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가질 것이며, 이렇게 한가지 두가지씩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는데 있다.

발명은 관찰에서 태어난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여러가지 도구가 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도구를 쓰고있는지 알아보자.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한다. 세수대야·거울·비누갑·수건·칫솔·치약 등이 있고, 식탁에는 밥그릇·국그릇·찬그릇·술갈·젓갈·조미료통·주전자·쟁반·이쑤시개 등등 수없이 많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도구다. 처음에는 없었던

것이 자꾸자꾸 연구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편리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내어 만들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발명이라 할 수 없다. 흉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만들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야 발명품이다.

노벨상을 만든 노벨의 다이나마이트 발명이 그 좋은 예이다. 노벨은 「니트로글리셀린」이란 액체의 폭발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러니까 학자였거나 기술자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니트로글리셀린은 기차가 덜컹 덜컹 흔들리기만 해도 폭발하는 위험한 것으로 수송은 목숨을 걸고 했다. 그래서 노벨은 생각했다. 「쉽게 폭발하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없을까?」

그러던 어느날 니트로글리셀린이 든 통을 창고에서 검사하고 하는데 어디엔가 구멍이 뚫렸는지 속의 액이 푹푹 떨어져서 구조토에 스며들고 있었다. 좀더 자세히 관찰해 보고 있으려니까 인절미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노벨은 「이것이 혹시 폭발하지 않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조그만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 보았다. 안전했다. 노벨은 펄뚱이 기뻐다. 「구조토에 니트로글리셀린을 흡수시키면 폭발하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것이 노벨의 대발명인 「다

이나마이트」 발명의 시작이다. 그 후에 연구를 거듭하여 드디어 「구조토」라는 흡수성이 강한 흙에 흡수시켜 그것을 팔아서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노벨상까지 만들게 되었다.

강조해 두건데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은 대발명도 반이상이 우리 주변의 세심한 관찰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하고 항상 관찰하는 습성을 길러야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기록하라

아이디어는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며 정지하고 있는 사태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만능의 동력」이다.

아이디어는 심심한 일에 자극을 주고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사업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기록하라.

링킨은 모자속에 종이와 연필을 넣어두고 언제든지 기록할 수 있게 했다. 링킨의 모자는 「움직이는 사무실」이었다.

슈베르트는 마음속에 항상 아름다운 악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손닿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기록하였다. 어느 때는 식당의 식단표에, 어느 때는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기록했다.

세계의 뛰어난 발명인들은 모두 「기록광」들이었다. 기록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는 없다.

기록은 후일에 발명의 재료가 되는 것으로 기록할 때는 「아주 기발한 데!」하고 생각 하나 시간이 흐르면 자꾸자꾸 결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결점이 나타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그것은 고칠 아이디어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 A씨는 잠자리에 들기전에 항상 머리맡에 2대의 녹음기를 두고 생각난 것과 꿈에 본 것을 그 자리에서 녹음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떠오른 급싸라기 같은 아이디어를 아무 미련없이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잠자리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연결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종업원 2천명의 기업 사장 Y씨도 기록으로 시작했다.

Y씨는 항상 백지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걷고 있을 때나 달치는 대로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결실을 맺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수많은 발명을 하게 되었고 이 순간도 발명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

Y씨의 발명품 종이비누와 환풍기등은 뉴욕 및 체네바 국제 발명전에서 금상을 수상, 많은량이 수출되고 있다. 특히 그의 발명품 모니터는 미국 및 일본에 이은 세계 3번째의 첨단 발명품인데 이 또한 기록이 밑거름이었다고 한다. <계속>